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Korean Society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용산파크타워 103동 307호)

TEL: 02)3487-9091 FAX: 02)3487-9092 E-mail: [entsoc@korl.or.kr](mailto:entsoc@korl.or.kr) Homepage : [www.korl.or.kr](http://www.korl.or.kr)

## 임원 (2016~2017)

이사장	노환중
부이사장	양훈식
부이사장	김익태
총무이사	이준호
고시이사	정종우
수련이사	김세현
간행이사	박경호
학술이사	조양선
재무이사	김진평
보험이사	조광재
보험이사	이승훈
의무이사	김진국
대외공보이사	변재용
기획이사	이승환
개원이사	최재진
법제윤리이사	신승현
교육연구이사	김철호
감사	하정도
감사	정필상

문서번호 대이학 16-30 호

시행일자 2016-01-18

수신 분과, 유관학회

참조

제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대국민 홍보 협조요청"

1.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 대의협 제688-8053호(2016.1.7.)

3. 대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대국민 홍보 협조요청"이 수신된 바, 이를 각 분과, 유관학회에 전달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 [배포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은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1 부.

덧붙임 2 : [대한의사협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대국민 홍보 협조요청 1 부. 끝.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노환중

대외공보이사 변재용



## 1 한의사도 의사 아닌가요?

**A** 한의사는 한의사면허자일 뿐, 의사면허자가 아닙니다.

의학은 전 세계 공통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반면,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것처럼 한의학은 중국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국 내에서 행해지는 한의학이 현대의 학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양대 산맥이 있다? 이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공통인 현대의학과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전래되어 온 한의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면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의학은 민족, 우리 것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한방, 한의학, 한의사 등에 사용되는 한자는 중국 한(漢나라의 '漢(한)' 지였으며, 1986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韓(한)' 자로 슬쩍 바뀌었습니다.

한방은 중국에서 유래한 '음양오행과 기'에 바탕을 둔 전래의학이며, 한의사는 의사면허자가 아니라 '한의사 면허자' 일뿐입니다.

## 2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하면 한방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핏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오히려 환자분들께 해가 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선두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어떻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겠습니까.

## 7 외국에서도 한방을 인정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나요?

**A**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한의사 제도가 없습니다. 세계 보편의 현대의학적 진단을 하여 대체 보완요법으로서 한방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한의학을 의학체계 중 일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진국도 민족 또는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1969년 명치유신 때 이미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한방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자꾸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 중국지식인들의 한의학 비판운동의 역사는 지적, 철학적 수준이 대단히 높으며 유래 또한 깊습니다.

## 8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발을 다쳤을 때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갔다 오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절약되지 않나요?

**A** 오히려 골절 등 검사기기를 통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먼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의학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는 침, 뜸 등은 골절이나 염좌(소위 발목을 빼는) 등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한의학 연구원 리뷰 논문 2004~2014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 카메라 찍거나 돋보기 보기처럼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의료행위'입니다.

이를 판독, 해석하고 향후 치료에 연결되는 진단 과정 모두가 현대의학의 지식과 임상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해악은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그 해악은 오진 등으로 인한 의학적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과학의 이론적 진술은 상호 연관성(coherence) 관계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현대의료기로 진단하고 한방으로 치료한다는 주장이 너무나 황당한 깨닭은 바로 과학 이론의 총체적인 원칙과 연관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3 한의사는 기기를 사용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건 학문 발전을 가로 막는 것 아닌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에는 한방 의료기기가 따로 있습니다.(양도락, 진맥기 등)

문제는 과반수의 한의사들이 이를 신뢰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2004년 한의학 연구원 최선미 박사팀)

한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인데, 이상하게도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 적용까지 시켜주었습니다.

한방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릅쓰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한방의료기기부터 최소한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 9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법그릇 싸움 아닌가요?

**A**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과 달리 자신들의 학문과는 상관없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려는 한방측은 법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로 면허가 다른 체계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거나, 한의학의 과학적 표준화를 선행한 후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면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의 문제는 과학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의료기기 문제에는 현대의료계가 양보 할 수 없는 일관된 과학과 학문의 원칙이 있습니다.



## 4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안압 측정기 등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면서 사법부에서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한 것 아닌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에 내린 안압측정기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큰 위험이 없고, 해석이 간단하고 심지어 안경사 등 다른 의료기기도 사용하므로 '5개 의료기기에 국한해' 내린 판결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를 전자 체중계 정도로 평가해서 내린 판결로 생각하지만 의료계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 판결 하나를 가지고 마치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 5 그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한 판결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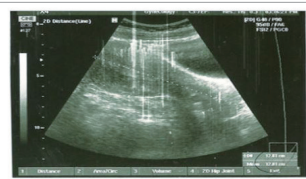
**A** 이미 2006년 CT(전산화단층촬영)를 필두로 X Ray(엑스레이)의 한의사 사용을 불허한 대법원 판결,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불허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2015년에 나온 IPL(Intense Pulsed Light : 피부질환 치료기의 일종) 사용을 불허한 대법원 판결까지 여러 개입니다.

사법부가 일관되게 판결하는 한의사의 사용 불가이유는 현대의료기기의 원리가 한방이론과 맞지 않고 한의사가 해석하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 IPL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자신들도 현대의학을 배운다'는 한방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한의사는 현대의학에 바탕을 둔 의료기기를 이해하는 종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 1) 한방 치료로 지궁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사진은 방광에 소변이 차있고 두 번째 사진은 소변이 비워진 상태에서 작게 보이는 것일 뿐인데 한방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궁 크기 재는 방법도 잘못 되었습니니다.

〈한방치료 전, 후의 지궁 크기 변화〉



지궁크기 변화

12.81cm → 8.79cm

## 6 한의사도 현대의학을 배우지 않나요?

**A** 일부 한의대에서 현대의학을 배운다고 해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우고 운전 기법에 대해 배우더라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부동산 관련법을 배워도 부동산 관련 송사를 변호사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취득된 면허 외에 업무행위는 무면허 행위로서 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한의사는 아무리 현대의학을 배워도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면허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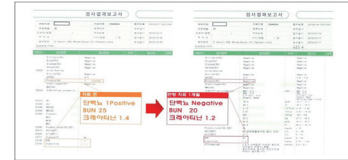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한방에서도 현대의학을 배우므로 현대의료기기 쓸 수 있다고 극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방대학 교과 과정 중 한방 대 현대의학 과목 비중은 3:7로 한방보다 현대의학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한의학이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주장을 하기 보다는 한의학의 과학적 원리정립으로 표준화를 이룬 다음, 의학과 한의학을 일원화하여,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호 발전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기에 아무리 배워도 현대의학의 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 2) 한의사가 당뇨병성 신부전증을 혈액검사로 진단하고 한방치료를 호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림에서의 항목만으로는 신부전증을 진단할 수 없고, 특히 혈액검사 변화만으로 신부전증이 호전되었다고 판명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검사결과로만 진단할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크며, 이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성장판이 조기에 닫힐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고가의 한약을 판매한 한의사의 예입니다. 방송에도 보도 되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되었습니다. 골밀도 측정기로는 성장판 검사를 할 수 없는데도 성장판 운운하면서 거짓 주장을 한 사례입니다.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KMA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KMA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1동 302-75)/ TEL 02-6350-( 내선 )/ FAX 02-796-4487  
정책보험국 국장 최윤배(6530) 팀장 박일현(6532) 담당 장윤영(6542) E-mail: dream117@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688-8053호

시행일자 2016. 1. 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대국민 홍보 협조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2014. 12. 28. 발표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에 의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과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을 위해할 위험성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3.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홍보물 파일을 배포하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를 비롯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이 철폐될 수 있도록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붙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PDF파일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각 시도 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 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